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2026년 7월 5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롬 5, 3)



김대건 신부 초상 프레쥬 (Fleure) 종이에 펜 1925년

위의 김대건 신부 초상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였던 플뢰레 (Fleuret)의 작품으로 1925년 초, 79위 시복식을 앞두고 그려진 펜화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교회와 역사」 제452호에 따르면, 방상근 (석문 가롤로)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은 프랑스 선교사 플뢰레의 펜화 그림이 1896년 간행된 「조선과 프랑스 선교사들」이란 책에 실려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솔위 성지에 있는 장발 화백이 그린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보다 30여 년 앞선 이 펜화 작품이 최초의 김대건 신부 초상화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현재 소장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마태 10,20)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카톨릭 성가집 286번 “순교자의 믿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286

순교자의 믿음

성인

보통 속도로 F. Henry and J.G. Walton

1. 환 난 과 뽀 - 박 중 - 에 서
 2. 순 교 자 옥 - 에 간 - 혀 도
 3. 순 교 자 믿 - 음 본 - 받 아

순 교 로 믿 음 지 - 켜 네 이 믿 음
 양 심 은 자 유 로 - 켜 네 우 리 도
 형 제 를 사 랑 하 - 리 라 우 인 자 한

생 - 각 할 - 때 에 기 뽀 이 중 만
 진 - 리 위 - 하 여 주 님 께 생 명
 말 - 과 행 - 위 로 이 믿 음 전 과

하 - 도 다 순 교 자 믿 음 본 받
 바 - 치 리 순 교 자 믿 음 본 받
 하 - 리 라 순 교 자 믿 음 본 받

아 끝 까 지 충 성 하 리 라
 아 끝 까 지 충 성 하 리 라
 아 끝 까 지 충 성 하 리 라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중 하나를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마태오 10,17-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9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20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22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5,1-5)

형제 여러분, 1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4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요한 6,51-58 나눔 묵상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51절)

- 하느님 안에 머무르며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룰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 노력했던 순간들이 소중한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분 안에 머무르려 노력해야겠습니다. (RC3)

■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51절)

-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처럼,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고 의심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방향이 곧 주님의 길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RC1)
- 눈앞의 일시적인 걱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매일을 희망차게 살아가겠습니다. (NV2)

■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1절)

- 영성체를 모실 때마다 이 은총을 묵상하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늘 제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V2)

■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5절)

-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과 피가 되도록 노력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V1)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6절)

- 하느님께서 항상 계시며 저를 지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1)
- '머무른다'라는 표현이 왜 쓰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존재한다·있다·계시다'가 아니라 '머무른다'라는 말씀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RC1)
-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지만 신앙생활이 매주 성당에 가는 일상으로만 굳어진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앞으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RC1)
- 생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 보니 요즈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시며 서로의 안에 머무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남겨준 소중한 기억을 마음에 품고, 소중한 이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NV2)
- 지난 한 달은 갑작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되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정리되어 평일미사를 드리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자리에 감사드리며, 제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V2)
- 지난 한 주는 건강 문제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제 안에 머물러 주심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늘 제 안에서 힘을 주시는 하느님께 언제나 감사기도를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NV2)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6절)

-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머무르시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십니다. 제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제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NV2)
- 하나님이 안에 머무시면 천국과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3)
-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RC3)
- 우리가 성당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성당에 나오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C3)
- 누군가에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V1)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셀라 성가집 “236”번을 부르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236 아무것도 너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글

김충희

아무 것도 너 - 를 슬 프 게 하 지 - 말 - 며 아
 무 것도 - 너 - 를 혼 - 란 케 하 지 말 지 - 니
 모 든 것 은 다 지 나 가 는 것 다 지 나 가 는 것 오 -
 하 느 님 은 불 변 하 시 니 인 내 함 이 다 이 기 느 니 라 하
 느 님 을 소 유 한 사 람 은 모 든 것 을 소 유 한 것 이 니 하
 느 님 만 - 으 - 로 만 - 족 - 하 도 다 하
 느 님 만 - 으 - 로 만 - 족 - 하 도 - 다



Scan me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일 학교를 졸업하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성당에 왔는데, 이제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당 안에서 좋은 추억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VBS 기간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웃고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엄마,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슬링 시즌에 살빼려고 진짜로 힘들었어요.

아빠,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거 잘 알아요. 대학 가서도 ROTC 장학금 받은 만큼 기대에 보답하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양효진!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고마워. 나 대학교에 갈 때 많이 보내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저다울 수 있게 응원해 주신거 항상 감사하고 잊지 않을게요.

저 보러 Arizona에 놀러 오세요!!!

But most importantly,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to the Class of 2026. I am so happy that my years spent at St. Andrew Kim were filled with memories with you.

Looking at all of your faces today fills my heart with joy. Over the years, we have all watched each other grow up not only as students, but also as people. We all faced challenges, doubts, and uncertainty, but everyone kept supporting each other, reminding us every Sunday of what family felt like outside of our own.

Whether you were born into this church or recently joined the community, your impact as a senior will always be remembered.

From feeling tired after long days of VBS prep, to the hangouts we planned outside of church events, to the moments we shared as a community at retreats, all of these memories were made special because of your firm belief in God and your love for the community.

Now, Sunday school, thank you for giving me a loving community filled with funny and intelligent individuals. I still remember the Sunday before True North VBS, holding a water bottle in my hand, practicing my script for the first day. I was super excited because all of the hard work we had put in was finally about to come alive.

But looking back at this moment, I realize this excitement only existed because of all of the happy faces I would see the next day. The community we have at church is something I can't describe.

I think every one of us is like a seed. Seeds are all usually very small and may seem insignificant. But within the right soil, environment, and care, a simple seed can sprout and become something bigger than what it used to be. When a seed is planted, it does not know what it will become. A pumpkin patch, a hibiscus flower, or a forest. Only by trusting the process will the seed be able to grow towards the light and come out of the soil, showing its true form.

In the same way, we do not know where life will take us. Forced to come here every Sunday might have been a burden in the past, but now it could be a place for spiritual connection.

Just like how seeds are always growing toward the light, God guides us through our journey, even when we cannot see it ourselves

Our friends and family are also here to guide us. I still remember during Stellar VBS, Leo and David forcing me to do Sing and Play. At first, I was quite nervous and embarrassed, but I slowly came out of my own shell. You guys helped me become a better leader, but also a better person. They held me accountable, gave criticism, and supported me throughout my Sunday School.

Through their constant efforts, I was inspired,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I continue to be a part of this community.

I hope everyone continues to stay involved with the church and create their own legacy. One day, the younger kids in this church will look up to you the same way we looked up to the hyungs and noonas during our time. The small things you do have a huge impact.

I already see a new legacy being created within our church. Whether it's Junki and Siwoo creating "Sticky Scripture" chants during VBS or small Leo and Jae bringing an overwhelming amount of energy to every event, each person has contributed something unique toward the legacy of St. Andrew Kim.

Seeing the younger generation step up, create their own ideas, and make an impact has made me realize everything will be okay. This church will continue to flourish, not because of one person's effort, but because every generation adds something new.

To the future leaders Hayden and Junki, I believe you will continue to change people's hearts and minds and build stronger faiths. Do not doubt yourself, take that risk; it is okay to feel uncomfortable.

Once again, congratulations, Class of 2026. I am truly proud of how far you have all come, and I know you will all be successful with your post-high-school plans.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2026 졸업생 대표 - 양 원진 요한 바오로



2026. 6.14. 졸업 미사